

# 광주 서구청장 재선 대진표 윤곽

## 비민주 야4당 단일후보 7일 최종 결정 민주 김선옥·무소속 김종식 후보와 각축전

오는 27일 실시되는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의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오는 12일~1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부터 '선거 부정감시단'을 구성하고 각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나섰다.

3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오는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는 현재 민주당과 비민주 야 4당, 무소속 후보 간 '3파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 14명의 예비후보를 상대로 1차 면접과 2차 여론조사를 거쳐 김선옥 전 광주 시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고, 1차

면접에서 탈락한 김종식 전 서구청장은 4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비민주 야 4당은 오는 6일 2개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서구 주민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오는 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비민주 후보로는 민주노동당 강기수 예비후보, 국민참여당 서대석 예비후보, 진보 신당 류상근 서구당 위원회의 위원장 등이 나섰으며, 일부 후보는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는 이들 3명의 후보를 상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후보가 확정된 민주당 김선옥 후보와 무소속 김종식 후보,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 간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이 오는 12일~13일인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4일부터 서구청장 재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보였듯이 예전처럼 민주당 후보의 압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에 도전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10·3 정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선거인만큼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광범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재선거는 특성상 낮은 투표율을 감안할 경우 민주당과 비민주 야 4당의 조직력이 얼마나 발휘될지, 정당 간 싸움 속에서 무소속 바람이 얼마나 불지자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는 유력 후보들이 한차례 서구청장 선거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재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결실을 볼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김선옥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서대석 후보는 국민참여당 후보로, 강기수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각각 출마해 당시 무소속 전주인 후보에게 패한 바 있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 역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시 민주당 전주인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와 함께 김선옥 후보와 김종식 후보는 4년만의 재대결이란 정치적 인연이 있다.

김선옥 후보가 2006년 열린우리당 서구청장 경선에서 김종식 후보에게 패한 바 있어 두 후보에게는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가 재결전의 장이 되는 셈이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남북이 지난 1일 오는 30일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가운데 3일 오전 경기도 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북이산가족찾기 접수처에 이산가족 상봉 과정과 절차 등을 문의하는 전화로 적십자사 직원들이 받고 있다. /연합뉴스

### ■ 10·30 이산가족 상봉 어떻게 이뤄지나

## 신청자 8만8000명중 500명 컴퓨터 추첨 200명 압축 생사확인후 100명 최종 상봉

남북 적십자사가 1일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곧바로 상봉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한적은 우선 이날 오후 7시 한적 강릉에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서 생존해 있는 8만8000여명 가운데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방문단의 5배수인 500명 추첨했다. 추첨은 연령과 만나려는 가족의 직계여부 등을 감안해 신청자마다 점수를 배정한 뒤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선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봉의사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말인 2~3일 20여명의 한적

직원이 출근해 500명의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들었다. 이후 상봉 대상자를 200명으로 압축해 5일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

200명 중 10%는 관례대로 국군포로와 남북자가 포함되지만 북측은 이들의 생사확인 요청에 대해 상당부분 '확인불가' 회신을 해와 지금까지 가명과 만나려 하는 28명에 불과하다. 13일에는 남북 양측이 자마다 점수를 배정한 뒤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에는 남북 가족을 찾는 북한의 신청자가 먼저 30일부터 사흘간 상봉

하며 이어서 남측 신청자가 북한의 가족들을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만난다.

상봉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로 한적은 상봉 대상자 25일 선발대를 보내 상봉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당초 남북 적십자사는 21일부터 상봉하는 것으로 의견교환을 이뤘지만 장소 문제로 이견을 보여 추가 실무접촉이 진행되면서 날짜도 순연됐는데, 오는 26일부터는 이를 통한 개성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절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 "北 '금강산관광회담' 제의 검토" "리비아 억류 한국인 2명 석방"

정부는 2일 북한 명승지종합개발발도국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검토하겠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강산 문제와 관련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북측의 통지문을 받았다"며 "이 제의를 받을지를 포함해 어떻게 할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에서도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접촉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북측이 추후 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관계 당국에서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발도국은 통일부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부동산 문제와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10월 15일 개성에서 열자"면서 "명승지종합개발발도국장을 비롯한 관계인 3명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아에 억류됐던 한국인 선교사 구모씨와 농장주 전모씨가 3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조건없이 석방됐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들의 석방은 한나라당 이석태 의원이 지난 1일 리비아 행정도시인 시르테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를 면담한 뒤 이틀만에 이뤄졌다. 구씨와 전씨의 석방은 장동희 주 리비아 대사 외무부의 영사부국장이 3일 오전 1시 30분께 장 대사에게 연락해 석방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 10·27 재선 현장

#### 김선옥,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주장

김선옥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고수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원과 서구민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공천 확정과 동시에 또다시 근거 없는 갖가지 흑색선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제는 진실을 외치고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흑색선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정책대결을 통한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대석, SSM 규제법 조속 통과 촉구

서대석 국민참여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SSM이 지역 골목상권 등 전국적으로 230여 곳이나 늘어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회기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어 "SSM 입점은 결국 영세업체의 매출감소로 폐업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침체를 가져 올 것이므로 입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기수, 아파트 출입구 보호구역 지정

강기수 민주노동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구에 '아파트 출입구 보호구역(아파트 존)'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가칭 '광주시 서구아파트 출입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공청회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존 조례에는 ▲신청 아파트 대상 지정 ▲아파트 출입구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철거 및 이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서구 선관위 부정선거감시단 발대식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는 10·27 서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선거부정감시단은 지난 9월1일 1차 편성된 15명에서 30명으로 늘었으며, 지역(동)과 후보자별 전담팀, 기동단속반, 선거비용자료수집반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시 위원회의 광역조사팀과 합동으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 북구 10년연속 수상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사진)는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등이 후원·주최한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 등 4개 부문에서 5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북구는 2001년 이후 10년 연속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전국 69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북구는 주민자치·제도정책·평생학습·지역활성화·센터활성화 등 5개 부문 중 제도정책 부문에 출품,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우수상은 "마을민들끼리 사업 10년 백서발간 및 향후 10년 기본계획 수립" 사례가, 장려상은 "책 읽는 마을 만들기"(운암3동), "늘 꿈꾸는 시화 문화마을"(문화동), "건강과 소통의 희망 밭실골 만들기 프로젝트"(두암3동), "배움과 사랑을 나누는 문화공동체(건국동) 사례가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됐다.

북구는 지난 10년간 박람회에서 대상 1회, 최우수상 4회, 우수상 12회, 특별상 2회 등 50개의 상을 수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미적만내

그동안 함양웃닭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모시고자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며, 2000년 8월 4일 개업이래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정성으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토종 참웃닭 | 웃 청동오리 | 웃 삼계탕 | 촌닭 백숙 | 삼계탕**

\*예약후 30분이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

## 함양 참웃닭

예약 전화

062-515-5757

북구 유동 9-3(삼성병원 뒷편)